

#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한의원 경영 현황 및 한의학사의 인식도 조사

백영화 · 김윤영 · 장은수\*

한국한의학연구원

## Survey on the Management Status in Korean Medical Clinics and Doctor's Awareness, 2008-2010

Younghwa Baek, Yunyoung Kim, Eunsu Ja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know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in Korean medical clinics (KMC) and the awareness of Korean medicine doctor. The simple random extraction method from the membership lis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in 2010 was used for survey. The questionnaire which had used in 2008 was revised, and those were sent to each KMC by mail. A total of 107 data were acquired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annual average employees working in each KMC was 2.9 persons and the number of daily outpatient was 33.8 person in 2010. The proportion of sales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at KMC has been increasing annually as 42.9%, 43.5%, and 44.8% of total sales, whereas the uninsured sales was 57.1%, 56.5%, and 55.2% of total sales in 2008, 2009, and 2010 respectively. All of the responders recogniz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medical service market was not good and the reason was mainly resulted from undeveloped medical technique, popularized use of functional foods for health and alternative medical care by Western medicine. To expand Korean medical service, the expansion of sales covered by public health medical insurance, government support and advertisement for public relation were needed

Key words : Korean Medicine, Traditional Medical Market, Management Status, Medical Service

### 서 론

2010년 기준 한방 의료기관은 한방병원이 171개, 한의원이 12,079개소로 한의원은 한방 의료기관의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한의사의 약 80.9%는 의원급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원은 실질적으로 한방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sup>2)</sup>.

국내 한방 관련 서비스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일반 국민의 한방병의원 의료서비스 이용율은 2006년 6.3%에서 2008년 5.4%, 2010년 4.5%로 감소하였고<sup>2)</sup>, 한방의료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도 2004년 6.1%에서 2008년 5.3%로 감소하는 등<sup>3)</sup>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방 의료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

를 보인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이나 한방정책의 변화는 한방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의원의 운영 상태와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경영 상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최근 이러한 상황은 한방 의료기관의 수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2001년 이후 한방 의료기관은 매년 약 460여 개씩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99개소의 증가에 그쳤다<sup>3)</sup>.

따라서 한의원 경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내외적 환경변화가 한의원의 경영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며, 미래의 경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과거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2년 전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개원연수별, 소재지별로 총화추출 된 52개 표본 한의원을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한해 한의원의 경영실태 조사 연구를 시행한 바 있고<sup>5)</sup>,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의 한의원 경영수지의 경향을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시적

\* 교신저자 : 장은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 E-mail : esjang@kiom.re.kr, · Tel : 042-868-9291

· 접수 : 2013/08/14 · 수정 : 2013/09/26 · 채택 : 2013/09/30

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2008년 이후 연구 결과가 없어 한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한의원의 실질적인 경영이나 재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sup>7,8)</sup> 한방 의료서비스 산업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경영 인식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2006년과 2008년에 실시한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연구이며, 최근 3년간의 한의원 경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고 경영자의 인식 및 한의학 발전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한방 의료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0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명부의 총 11,616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모집단을 지역별로 층화하여 기관명을 이름순으로 나열한 후 단순 임의추출방법으로 700명을 선정하였으며, 인터넷으로 현재 한방 의료기관 운영 여부와 주소 등이 확인된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설문지가 발송된 대상자 중 115명으로부터 자료를 획득하여 설문회수율은 17.7%였다. 이 중 결측치나 이상치가 있는 자료 7건과 한방병원 1건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107건의 한의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2006년과 2008년에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2010년 기준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7,8), 조사 내용은 한의사 인적사항 7문항, 한의원의 일반적 사항 10문항, 한의원 경영관련 12문항, 한방 의료시장의 인식도 및 발전방안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영관련 내용은 최근 3년간의 것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내용 중 한의원 경영관련 항목과 한방 의료시장의 인식도에 관한 2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1월부터 두 달간 우편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우편발송용 봉투에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같이 넣어 해당 한의원으로 발송하였고, 각 한의원 원장이 이를 작성하여 한의학연구원에 재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전화로 한의원의 참여협조를 요청하였다.

### 3. 통계 처리

수집된 설문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의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경영관련 문항은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한방 의료시장 인식도 문항은 주관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 재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한의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 분석된 자료는 총 107건으로 한의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의원의 설립 기간은 10년 이상이 56.1%로 가장 많았고, 7년 미만 29.9%, 7-10년이 14%였다. 경영형태는 독자형태가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회사형태 역시 개인이 95.3%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규모는 60평대 이상이 27.1%로 가장 많았고, 30-39평이 25.2%, 40평대 19.6% 순이었다. 주당 진료일수는 6일이 90.7%로 가장 많았고, 휴일진료가 없다고 응답한 곳이 60.7%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Facilities (N=107)

Category	Number	%
Operating periods (yr)		
<7	32	29.9
7-10	15	14.0
≥10	60	56.1
Management type		
Franchise	2	1.9
Personal	105	98.1
Company Type		
Individual	102	95.3
Partnership	2	1.9
Foundation	2	1.9
No Response	1	0.9
Facility Size (py)		
<30	10	9.3
30-39	27	25.2
40-49	21	19.6
50-59	20	18.7
≥60	29	27.1
Working Days per Week (Day)		
1-5	9	8.4
6	97	90.7
7	1	0.9
Working at Holidays		
National Holiday	35	32.7
Sundays	3	2.8
None	65	60.7
Others	4	3.7

### 2. 한의원의 경영현황

본 연구는 한의원의 운영기간에 따라 재정 상태가 달라지는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sup>9)</sup>, 한의원의 운영기간을 7년 미만, 7-10년,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경영 상태를 살펴보았다.

#### 1) 한의원 근무자 및 내원환자 현황

각 한의원의 고용자를 제외한 근무자 수는 연평균 2008년 2.9명, 2009년 2.8명, 2010년 2.9명으로, 운영 기간이 7-10년인 한의원이 2.5-2.6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일일 내원 환자 수는 2008년 33.3명, 2009년 33.4명, 2010년 33.8명이었고, 운영 기간이 7년 미만인 한의원은 2008년 31.5명에서 2010년 35.1명으로 3.6명 증가하였으나, 10년 이상인 한의원은 1.1명 감소하였다(Table 2).

#### 2) 한의원 매출 현황

연평균 총 매출액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과 2010년

매출액의 증가율을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1.02배, 2010년에는 1.04배로 연평균 총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고, 연 매출액 증가폭은 한의원 운영기간이 7년 미만 한의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 대비 건강보험 비율은 2008년 42.9%, 2009년 43.5%, 2010년 44.8%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비보험 비율은 2008년 57.1%, 2009년 56.5%, 2010년 55.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운영기간에 따른 총매출액은 10년 이상인 한의원이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7-10년 한의원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인 한의원이 41%로 가장 낮았다(Table 2). 2010년 기준 한의원의 일일 조계약 수는 평균 3.4개 수준이었다.

Table 2. Management Status of the Korean Medical Clinics by Operating period

	Operating periods (year)			Total
	<7	7-10	≥10	
Employees (person)				
2008	2.8	2.6	3.0	2.9
2009	2.8	2.5	2.9	2.8
2010	2.9	2.6	3.0	2.9
Patient (person)				
2008	31.5	33.9	34.0	33.3
2009	32.5	35.1	33.7	33.5
2010	35.1	34.7	32.9	33.8
Average Sales*				
2008	1.00	1.00	1.00	1.00
2009	1.07	1.01	1.01	1.02
2010	1.10	1.02	1.03	1.04
Amount of sales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Million won)				
2008	109	151	128	126
2009	119	159	130	131
2010	135	170	131	138
Sales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				
2008	40.9%	52.6%	41.4%	42.9%
2009	41.8%	55.0%	41.6%	43.5%
2010	46.5%	57.9%	41.0%	44.8%
Sales not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				
2008	59.1%	47.4%	58.6%	57.1%
2009	58.2%	45.0%	58.4%	56.5%
2010	53.5%	42.1%	59.0%	55.2%

\*2008년 기준으로 2009년과 2010년의 총매출액을 재산출하였음.

3) 한의원 경영 재무항목 비중

2010년 기준 한의원 경영 재무항목별 비중은 인건비가 19.7%, 재료비가 20.4% 수준이며, 임대료 및 광열비가 10.1%, 순이익은 35%, 기타 비용은 14.7%이었다(Fig. 1). 이를 총 매출금액으로 환산하면 인건비가 60.7백만 원, 재료비가 62.8백만 원이며, 임대료 및 광열비가 31.1백만 원, 순이익은 107.8백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은 45.3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3. 경영 인식도 조사

현재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의 침체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107명 전원이 침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의 침체 사유는 기술정체가 49명(2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강기능 식품확대 44명(18.9%), 양방병원 견제 38명

(16.3%), 신뢰부족 26명(11.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홍보부족, 의료수가 정책미비, 시장포화, 경기침체 등이 있었다(Fig. 2).

한방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건강보험 확대와 정부지원정책 강화가 각각 43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강화 28명(17.3%), 기술개발 2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약재관리, 면허 강화, 진단표준화 등이 있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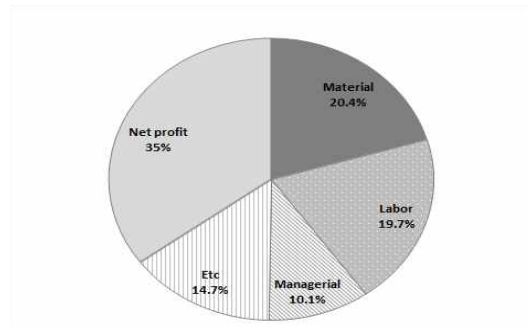


Fig. 1. Proportion of Financial Items of the Korean Medical Clinics i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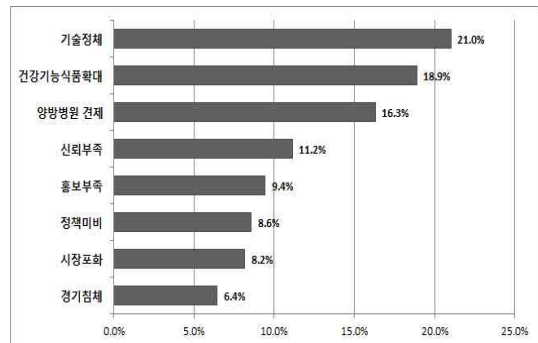


Fig. 2. Reason for depression of Korean Medic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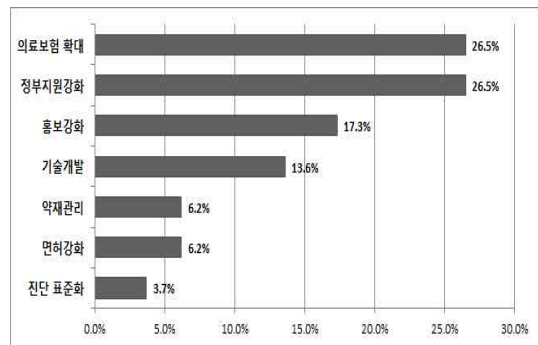


Fig. 3. Supporting policies for revitalization of Korean Medical Service.

고 찰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06년과 2008년에 실시한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속선상의 조사이다. 특히 한방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원 경영 상태와 경영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한의원의 효율적인 경

영 방안과 한방 의료시장에 대한 발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한의원의 약 70%가 설립기간이 7년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이 개인 독자형태였다. 이는 2006년과 2008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독자 형태로, 한방 의료기관의 절대 다수인 한의원의 운영 형태는 원장 1인의 소규모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sup>7,8)</sup>. 양방병원의 의원급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다인의원의 증가율은 3.6%로 1인 의원의 증가율 1.6%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진료의 세분화와 전문화, 병원 경영의 다각화 등을 통해 의원급 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sup>9)</sup>. 그러나 한의원은 진료 특성 상 2인 이상의 공동개원이 1인 한의원에 비해 장점이 크지 않아<sup>10)</sup> 1인의 독자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한의원의 고용주 외 근무자 수는 2010년 기준으로 2.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한의원 근무자수 3.2명인 것보다 줄어들었고<sup>8)</sup>, 2008년 2.8명인 것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였다<sup>7)</sup>. 이는 한의원의 총매출이 2005년에 비해 2008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늘어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근무자 수는 한의원 매출과 다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운영기간이 7-10년인 한의원 근무자 수가 2.5-2.6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았으며, 이를 환자수와 비교해보면 7년 미만인 한의원은 환자수가 3.6명 증가하였으나, 7-10년인 한의원은 0.8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한의원 경영에 필요한 경비의 비중은 2008년 조사<sup>7)</sup>에 비해 인건비, 재료비는 늘어난 반면, 임대료와 광열비는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건비는 한의원의 비용항목별 구성비 중에서 52-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sup>. 따라서 한의원의 근무자 수 감소는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폭 감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한의원의 경영 비용절감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의원 총매출은 2008에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강보험 매출은 2008년 42.9%에서 2010년 44.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조사<sup>7)</sup>의 39.3%에 비해서는 건강보험 비율이 증가하였다. 즉, 한의원 매출액의 건강보험 비율은 증가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비보험 매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의 연구에서도 한의원의 보험 수입이 2007년 23%에서 2007년 5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비보험 투약은 1996년 41%에서 2007년 31.6%로 감소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sup>6)</sup>. 보험매출 증가의 이유는 한방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수가가 2008년 이후 평균 1.94%에서 2.05%정도로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sup>11,12)</sup>. 그리고 운영기간에 따른 총 매출액은 10년 이상인 한의원이 가장 높았다. 한의원의 경쟁력은 장기간 누적된 평판으로 구축된 명성과 신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방문과 지인의 권유로 이어져 한방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에 중요한 요소이며<sup>13)</sup>, 결과적으로 한의원 경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운영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매출 비율은 7-10년인 한의원이 2010년 57.9%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이 41%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개원연수가 오래 될수록 건강보험에 비해 일반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sup>5)</sup>.

한의원 경영자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의 침체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전원이 한방 의료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의 침체 사유로는 기술 정체가 49명(2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강기능식품확대 44명(18.9%), 양방병원 견제 38명(16.3%), 신리부족 26명(11.2%) 순이었다. 이런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 침체는 한방 의료서비스의 비보험이 늘지 않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본 조사에서도 총매출액 중 비보험의 비율이 2008년 57.1%, 2009년 56.5%, 2010년 55.2%로 줄어든 것이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 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2008년 조사에서는 IMF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의 경제 위축과 경기 침체인 반면에<sup>7)</sup>, 이번 조사에서는 한방 의료기술의 정체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시장의 정체가 과거에는 외부적인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한방 의료의 내부적인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등은 전통 의료의 문제를 한방 의료계 내부의 표준화 미비와 한방의료 특성에 따른 과학성 정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sup>14)</sup>, 이 등도 한방이용율의 감소가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학의 낮은 전문성, 객관적 근거의 부재, 한의학계 의식의 문제, 연구방법론의 단순성, 보건의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sup>4)</sup>. 따라서 한방 의료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전략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 확대와 정부지원정책 강화, 홍보강화, 기술개발 순이었으며, 2008년 조사<sup>7)</sup>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확대 및 정부지원 정책 강화, 홍보강화는 약간 감소하였고,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졌다. 최근 한의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한방의료 시장 침체의 주요한 원인은 기술개발의 부족이며, 이를 우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인식도 결과에서 우리는 한방 의료의 진단, 치료, 예방 원천기술 개발 및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이 중시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한 등이 표준화 미비 및 과학적 해석의 어려움이 전통의학 연구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sup>14)</sup>, 앞으로 한방 의료의 임상근거창출과 원천기술 확보는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6년과 2008년도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시행되어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있어 한의원의 경영현황 및 경영자의 한방 의료서비스 인식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추이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회상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인식도 질문의 주관식 응답으로 정확한 빈도분석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 조사를 통해 올바른 정책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간의 한의원 경영 현황 및 인식도를 살펴보고자 2011년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방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원 경영 수지와 규모를 파악하고 한방의료 시장에 대한 인식 및 발전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지역 1차 한방의료 서비스 정책 개발 및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 한의원의 한의사를 제외한 근무자 수는 연평균 2008년 2.9명, 2009년 2.8명, 2010년 2.9명이었고, 일일 내원 환자 수는 2008년 33.3명, 2009년 33.4명, 2010년 33.8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08년 기준으로 2009년에는 1.02배, 2010년에는 1.04배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기준 한의원 경영 재무항목별 비중은 인건비가 19.7%, 재료비가 20.4% 수준이며, 임대료 및 광열비가 10.1%, 순이익은 35%, 기타 비용은 14.7%로 조사되었다.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의 침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107명 전원이 모두 침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침체 사유는 기술정체가 49명(2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강기능 식품확대 44명(18.9%), 양방병원 견제 38명(16.3%), 신뢰부족 26명(11.2%) 순이었다. 한방 의료서비스 정책지원으로 건강보험 확대와 정부지원 정책 강화가 각각 43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강화 28명(17.3%), 기술개발 22명(13.6%)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향후 지역 1차 한방 의료서비스 정책 개발 및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2006-2005175) 및 동서의학 융합의 미병 진단 기준 개발(K13070)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임.

##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방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2012.
2.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KATS 기술보고서, 한의학 산업 및 표준화 동향. 2012.
4. 이선동, 최찬호.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환자감소요인 고찰. 한국의학사학회지 24(1):9-15, 2011.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과 방안 연구. 2002.
6. 김대훈, 임병목. 20년간(1997년~2007년) 한의원 경영수지의 경향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6(2):41-52, 2012.
7. 유종향, 이준혁, 박기현, 진희정, 장은수.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1):143-150, 2010.
8. 장은수, 유현주, 김효정, 이시우. 정통의료서비스 시장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 전국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한동의생리병리학회지 13(3):143-149, 2007.
9. 박수경. 한국보건행정학회 진기학술대회, 일차의료 활성화의 기본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10. 박요한, 황대선, 신현규. 한의원 환경 및 한의사의 진료 현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32(4):25-36, 2011.
1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1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12.
1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ate of Increase for Medical Fee in the Insurance Scheme. Available from : <http://www.nhic.or.kr>.
13. 서영준, 강신희, 김연희, 최대봉, 신현규. 한의원 환자들의 한방의료 이용 형태 및 만족도 실태. 대한한의학회지 31(2):124-136, 2010.
14. 한동운, 김향자, 윤태형, 우혜경. 우리나라 한방의료의 현황과 과제 :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적 선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9(1):77-89, 2005.